

자극다함께키움센터

사업명	다함께돌봄사업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추진기관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1층
규모	77.40㎡
개소일	2022. 4. 22.
건축사	이중희 _ 투엠투건축사사무소

자극다함께키움센터는 자곡문화센터 내 위치한 약 82.6제곱미터(25평)의 자투리 유휴실을 활용하여 계획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각 공간마다 활용성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조닝계획을 목표로 하였다. 공간은 크게 놀이공간, 학습공간, 업무공간으로 나누어진다. 놀이공간은 쿠션매트와 패브릭, 목무늬 필름지를 사용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었으며, 다양한 형태 및 높이차를 둔 메자닌 구조의 공간구성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유도하였다. 학습공간은 이동식 책상과 의자를 사용한 가변적 공간 구획을 하였으며,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와 색상으로 구성된 독서공간과 책장을 계획하여 차별하면서도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공간은 키움센터에 상주하는 돌봄선생님 2명의 책상과 간이침대 설치하여 독립된 공간을 조성하면서, 망입유리를 사용하여 구획하여 아이들의 시선에서 항상 노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방공간의 테이블은 아이들의 간식테이블 용도와 학습테이블 용도 등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건물 구조상 발생된 젠다이(돌출창대) 상부공간에는 창문의 간격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파스텔 톤의 수납장을 제작 설치하여 물품보관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키움센터는 규모에 따라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구분되는데 자곡다함께키움센터는 규모가 가장 작은 일반형 모델이며, 실제 공사비 예산도 상당히 적은 공공프로젝트이다. 부족한 예산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사는 자신의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역할을 크래프트맨십으로 확장하였다.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후

제한된 예산 안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발주처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최종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 자곡동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자곡다함께키움센터는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아이들의 가치에 기초하여 주민들과 함께 사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현관 입구 2. 동적공간 3. 교사실과 텃밭실